

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 소분과(태양광) 제1차 회의 결과보고

2026. 1. 15.(목), 농어업정책팀

□ 회의 개요

- 일시/장소 : 2026. 1. 14.(수) 14:00 ~ 16:00 / 농특위 대회의실
- 목적 : 태양광에너지 소분과 의제방향 논의 및 추진계획 수립
- 참석자 : 13명
 -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 소분과(태양광에너지) 위원 10명(불임)
 -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, 농특위 사무국 2명(이은영팀장 김재완전문관)

□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당부말씀

- 햅빛소득마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각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음. 재생에너지특위, 특히 태양광에너지 소분과에서 체계적으로 논의를 해주시길 요청드리며, 추진 중인 제도상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람. 국정과정로서 햅빛소득마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기에 재생특위가 큰 역할을 부탁드림.

□ 주요 회의내용

- 햅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가 공론화의 역할에 집중하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.
 - 과거 실패 사례들을 거울삼아 충분한 숙의 과정 필요하며, 햅빛소득마을 우수 사례 분석 및 정보 공유 요청
 - 농민단체, 지역주민, 국회 등의 의견을 직접 듣는 공론화 시간 필요
 - 주민참여를 넘어선 '주민주도형'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

- 과거 물량 위주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을 경계해야 하며, 현장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'솔루션 패키지'가 필요함
 - 정책 실효성이 과거에는 '다다익선'이었으나, 한 개라도 부작용이 발생 시 사업 실익은 낮아지므로 꼼꼼한 모델이 정착되도록 노력
 - 정부 부처는 각 마을에 적합한 [부지, 계통, 금융, 주체] 패키지로 컨설팅 및 교육 진행, 사업지원 또한 현장 밀착형 디테일한 실행 솔루션 구축 해야됨
- 햅빛소득마을 운영 주체를 마을 단위 협동조합으로 운영 시, 다양한 제한과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 준비가 필요함
 - 협동조합 대표와 시공업체 대표가 동일한 경우로 일감몰아 주기 등 부작용 발생 여지 있으니 사후관리(등록제) 체계 준비
- 범부처 추진기구 '햅빛마을 추진단' 운영 시, 농촌 현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의견을 관철하고 논의를 주도해야 함
 - 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·제도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 미해결 과제(환경영향평가, 과세문제 등) 발굴 통한 정부 건의

□ 향후 추진계획

- 제2차 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(‘26. 2.12.)시,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ESS 수익성 분석 관련 자료 발표 예정
- 제2차 소분과 회의(‘26. 3. 13.)시, 우수 마을 사례 분석 및 공유
 - 마을 사례에서 실질적 운영 모델 보완점 발굴 및 의견 제시
- 부처 간 이견 또는 미해결 과제 발굴로 위원회 역할 강화

불임**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태양광에너지 분과 참석명단**

순번	소 속	직위/직책	성 명	비고
1	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	상임운영위원장	한석우	재생에너지 특위 위원장
2	(주)에너지와공간	대표	김윤성	
3	(사)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	사무총장	남재우	
4	농림축산식품부	과장	박해정	
5	농어촌연구원	원장	이승현	
6	(사)지구행동	이사	임송택	
7	경기 여주 구양리	이장	전주영	
8	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	변호사	지현영	
9	(사)가톨릭농민회	사무총장	홍명희	
10	기후에너지환경부	과장	홍수경	

※ 위원명단은 가나다 순